

김진규 “비디오 보며 연구”…아디 “높은 볼 자세히 관찰”



FC서울의 상승세 비결로 수비수들의 연속 공격 포인트 행진을 빼놓을 수 없다. 3일 수원 삼성과의 라이벌전에서도 김진규(왼쪽)-아디의 골로 9경기 무승의 꼬리표를 끊었다.

사커 피플

I 서울 '슈트라이커' 김진규·아디가 밝힌 골 넣는 비결

김진규, 5경기 4골 1도움

“동영상보며 골 구질 파악…고3때 한 대회 7골 득점”

아디, 2연속경기 골맛

“뜬볼 슛 연결 내 주특기…공격진 좋아 나에게 찬스”

앞으로 FC서울을 상대하는 수비수들은 골치 아플 것 같다. 서울의 간판공격수 데물리션(데안+폴리나) 뿐 아니라 슈트라이커(수비수+스트라이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아디(37)와 김진규(28) 콤비를 막는데도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중앙수비수 김진규는 7월7일 성남 전부터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4골1도움)를 기록 중이다. 4골 모두 결승골. 중앙, 왼쪽수비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오가는 멀티 플레이어 아디도 최근 2경기 연속 골 맛을 봤다. 특히 3일 수원 삼성과 홈경기 때 아디가 선제골, 김진규가 결승골을 합작하며 3년 만의 슈퍼매치 승리를 이끌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다. 5일 구리 챔피언스파크에서 김진규와 아디를 만나 비결을 들었다. 이들이 공개한 '골 넣는 수비수'의 비밀은 '치밀한 연구'에 있었다.

-7월13일 전남 원정(종료직전 김진규가 헤딩 결승골 작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데.

김진규(이하 김) : 사실 그 프리킥을 직접 차려고 했다. 그런데 벤치에서 감독님이 손짓을 하더라. 감아 차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감독님이 계속 소리를 지르며 골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 아쉬움을 뒤로 하고 문전으로 갔는데 헤딩 골을 넣었다. 내가 킥 직전에 들어와 상대 수비가 미처 막을 틈이 없었던 것 같다. 하하. 그 때부터 계속 헤딩으로 골을 넣고 있다.

-골 넣는 수비수의 비결을 조금이라도 공개해 달라.

김 : 처음에는 운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계속 넣으니 골 냄새? 그런 게 느껴진다. 우리 팀의 킥러 폴리나, 하대성의 구질이 다른데 그걸 파악해야 한다. 혼자서 비디오를 보면서 연구 아닌 연구를 한다.

아디 : 동의한다. 진규는 빠른 볼을 타이밍 맞춰서 때리는 데 능하고 나는 높은 볼을 자세히 관찰한 뒤 슛을 하는 걸 좋아한다.

김 : 맞다. 수원전에서 나온 아디의 골은 정말 쉽지 않았는데 넣더라.

아디 : 진규가 앞에서 잘라 들어가며 상대를 유도해주니 공간이 나오는 거지.

김 : 앞으로 같이 인터뷰 자주 해야겠다. 이렇게 칭찬을 주고받으니 기분 좋다.

-어린 시절 공격수는 해 봤나.

김 : 고3 때 공격수로 한 대회에서 7골 넣어 팀을 우승시킨 적도 있다. 백지훈(김진규의 안동도 동기)이 7개 중 6개를 어시스트해줬다.

아디 : 브라질에서는 유소년 축구를 할 때 다양한 포지션을 다 해본다. 스피드가 있어 왼쪽 윙을 본 적이 있다.

-혹시 경기 전 세리머니도 준비 하나.

김 : 그렇지는 않다. 사실 수원 전 때는 골 들어가면 데안, (김)치우 형이랑 세리머니 하려고 준비한 게 있었는데 못 했다. (땀) 뻘뻘 흘렸다. (겉 그룹 크레용 팝의 최신 춤)

아디 : 골 넣으면 다른 거 없다. 무조건 뛰고 안는 거다.

-서울은 공격수들이 골을 계속 못 넣고 있다. 혹시 미안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나.

아디 : 우리 공격수들이 실력이 좋아 너무 집중마크를 당하는 측면이 있다. 상대가 우리 공격수들만 따라다니다 보니 우리 수비수에게 찬스가 생기는 거다.

김 : 공격수들은 골 부담감이 크지 않다. 우리가 온 좋게 골 넣어 그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한다.

-라이벌전에서 득점하며 승리해 기분이 남다를 것 같다.

김 : 수원과 경기는 워낙 관심을 받다보니 실수를 해도 크게 부각된다. 수원 팬들이 그전에 나를 가리켜 '고맙다' '수원의 13번째 선수'고 비아냥거릴 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이번 경기를 통해 털어낸 것 같다.

아디 : 수원과 경기만 앞두면 다른 생각 안 든다. 무조건 수원 잡는다는 생각뿐이다. 이번에 징크스를 했으니 앞으로도 꼭 이길 거다.

-수원을 이기고 나니 사실 서울은 수원에 약했던 게 아니라 윤성호 부산 감독(전 수원 감독)에게 약했던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7일 부산과 FA컵 8강이 있는데.

김 : 우리 팀은 올 시즌 초반과 완전히 달라졌다. 부산 팬들이 윤성호 부적을 들고 올 것 같은데 아무 소용없을 거다. 짐만 되지 않을까.

아디 : 감독 징크스라는 게 어디 있다. 그런 것은 없다. 우리가 진 거면 팀 전체가 단합이 안돼서 그런 거지 감독 문제가 아니다.

-올 초 부진할 때와 달리 이제 3관왕(리그, FA컵, 챔피언스리그)을 노리는 위치가 됐다.

김 : 힘들 때 감독님께서 선수들을 믿어주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다. 실점이 많을 때 수비수들에게 어떤 점이 작년과 달리 잘 못 됐는지 잘 설명해 주셨다. 감독님이 분석하시는 게 뛰어나다. 지금 분위기라면 3관왕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디 : 감독님은 분석도 잘 하시고 처방이 좋다. 무엇보다 선수들 믿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된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최용수 감독이 아디를 '외국인 선수들의 팀장'이라고 한다.

아디 : 하하. 일단 4명의 언어를 다 구사하니까. 내가 서울에서 오래 있으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는데 다른 선수들도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말 잘 안 듣는 선수)는 데안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 자기만의 행동, 방식이 있다. 하지만 대화로 다 통한다.

구리 | 윤재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상암 |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냉정과 열정사이’ 김호곤의 심리학개론

평소 무서운 호랑이감독 선입관 강해 가끔은 다정다감…울산 상승세의 힘

울산 현대는 K리그 클래식(1부 리그)에서 기세등등하다.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지만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더 힘을 내고 있다. 한 계단씩 꾸준히 오르더니 12승5무4패(승점 41)로 2위다.

1위 포항 스틸러스와 1점차다. 상승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사령탑 김호곤 감독만의 '심리전' 효과가 크다. 산전수전에서 공중전까지 모두 겪은 베테랑 지도자 김 감독에게는 늘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니지만 사실 호통만 치는 게 아니다.

선입관일 뿐이다. 필요에 따라 호통의 강약을 조절하고, 때론 달래면서 선수단을 이끌어간다. 3일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원정 21라운드에서 김 감독의 리더십이 돋보였다.

하프타임 때 울산 선수들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0-2로 뒤진 채 라커룸으로 들어선 제자들은 스승의 눈치만 봤다. 킥오프를 앞두고 김 감독이 지

시했던 전술과 움직임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상대가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칠 거다. 카운터atak을 노리자"고 했지만 내리 실점했다. 이른 시간대인 전반 막판 선수 교체를 단행한 것도 시간을 조금이나마 끌어보자는 울산 벤치의 계산이었다.

평소 같으면 한바탕 호통이 나왔어야 하는 상황. 이 때 김 감독은 뜻밖에 칭찬을 했다.

"상황이 많이 불리하잖아. 그래도 잘하고 있어. 볼을 최대한 간수하며 기회를 엿보자."

효과는 금세 나타났다. 울산은 전반과 180도 달라진 경기력으로 후반 홈 팀을 조였다. 후반 볼 점유율과 볼 점유시간도 인천보다 앞섰다. 장신 골키퍼 김신욱의 도움으로 김치곤, 하피나가 내리 득점했다.

김 감독의 심리전은 지난 시즌에도 빛났다. 이기고 있을 때도 필요하다 싶으면 강하게 몰아치고, 지거나 불리한 흐름을 보이면 기를 살려가면서 통솔했다. 선수 심리를 역이용했다. 결국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정상을 밟으며 가장 화려한 구단 역사를 열었다. 울산의 올 시즌 목표는 정규리그 1위. 어지간해선 무너지지 않는 끈끈한 팀 정신도 크지만 벤치의 심리전은 큰 힘이 되고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울산 현대의 승환 뒤에는 제자들의 마음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김호곤 감독 심리전의 힘도 크다.

스포츠동아DB

다시 등장한 '검은손'…축구 불법베팅 비상

■ 취재파일

K리그클래식 21R 4경기에 베팅 중계자 적발
중 유학생 전화중계…경호인력 부족 등 한계

4일 전북 현대와 강원FC의 경기가 열렸던 전주월드컵경기장. 관중석 스탠드 상단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가 있었다. 홀로 앉아 이어폰을 끼고 셀 세 없이 떠드는 모습. 영락없는 불법 베팅 중계자였다. 구단은 차분하게 대응했다. 의심자를 인근 파출소로 넘겼다. 경찰은 조사결과 불법 베팅 중계자임을 확인했다. 중국인 유학생으로 푼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부산 아이파크와 경남FC전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중국어 행동요령서가 나오면서 팀미를 잡혔다. 제주 유나이티드와 전남 드래곤즈, 대구FC와 포항 스틸러스 경기에서도 불법 중계자가 적발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커졌다. K리그 클래식 21라운드 7경기 가운데 4경기에서 불법 베팅 중계자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프로축구연맹은 2년 전 승부조작으로 홍역을 치렀다. 불법 베팅은 사라지지 않고 수면 속에 있다가 다시 위세를 뽐내고 있다. 30주년을 맞은 프로축구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불법 베팅은 광범위한 영역까지 '검은 손'을 내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5월4일 챌린저스리그(4부) 경기에서 전화 중계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이송 조치했다.

유소년 리그까지 불법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

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프로연맹은 2011년 6월부터 꾸준히 예방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4가지 부정방지 활동을 마련했다. 암행감찰 활동을 통해 관중석 내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 프로연맹은 매 경기마다 매치 코디네이터를 통해 불법 행위를 감시하지만 한계에 부딪힌다. 경호인력 동원도 마찬가지. 수많은 관중이 찾는 경기장에서 불법 행위자들을 일일이 단속하긴 벅하다.

단속된 것보다 단속하지 못한 행위가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사후 대책은 더욱 취약하다. 지역 경찰과 협조 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 범법 행위를 금지하지만 엄포에 그쳤다. 5월 챌린저스리그 중계로 적발된 사람들은 약식기소로 100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처벌 조항이 무색하다.

프로연맹은 되려 승부조작 징계 대상자들의 처벌 수위를 감해주면서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다. 프로연맹은 이제야 불법 베팅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 마련에 나섰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적발되는 즉시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서마다 처벌기준이 모두 다르다. 금주 내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과 협의해 전 구장에서 동일한 처벌 기준 및 대응책을 만들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편지 | 심승수 기자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K리그연간회원·붉은악마는 패루전 티켓 할인
축구협회가 14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초청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한국-페루' 입장권을 할인 판매한다. 할인 대상은 K리그 구단의 연간회원과 붉은 악마 회원이다. 할인율은 30%다. 이날 경기의 승리 팀에는 한국-

페루 수교 50주년 기념 트로피가 주어진다.

홍명보장학재단컵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성료

홍명보장학재단컵 유소년클럽 축구대회가 5일 인제군에서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7월 31일 개막돼 6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는 U-

10(학년 이하), U-12(6학년 이하) 팀을 챔피언십과 챌린저십으로 나눠 진행됐다. U-10 챔피언십에는 광명유소년A, U-10 챌린저십에서는 수원주니어가 우승을 차지했다. U-12 챔피언십에는 파주조영중축구교실, 챌린저십에서는 수원주니어가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